대원불교대학 건물 전경.

한국불교 원동력

느껴보이소~마!

12월 5일 부산 대원불교대학 문 열어
개원전 '불교신행경전 특강' 인기몰이
교육·청소년 포교 활성화 새 중심지로

70년대 초 불교계 최초로 설립된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이 12월 5일 부산에서도 문을 연다. 개원을 앞두고 11월 23일부터 8주간 '불교신행경전 특강'을 열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부산 대원정사·대원불교대학은 30년 전통의 '교육 불사' 노하우를 살린 다양한 특강과 불교문화센터 운영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대원불교대학 부설로 운영될 불교문화센터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계획이어서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파라미타 부산협회 소속 중·고등학생들과 신심 깊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네트워크로 연결, 어학·과학교실 등의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만들 계획이다. 이는 불교적인 마인드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젊은 불자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부산대교수불자회, 대학생 불자들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교 교리 중심의 법회를 탈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아리 활동으로 '재미있는 불교' '도움이 되는 불교'의 이미지를 심어, 생동감 있는 법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는 것.

이처럼 특색 있는 문화센터 운영 외에도 대원불교대학이 이목을 끄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불교서적은 물론 베스트셀러 5~6천권을 구비한 불교도서관과 최첨단 영상 시설을 완비, 불교영화 감상 및 토론, 불교 영상 자료 관람이 가능한 대학 강의실, 선방 일정에 맞게 자율 정진이 가능한 선다원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원정사는 큰법당을 갖추고 불자들의 신행상담, 기도, 법회 등을 챙기며 교육과 수행의 양 바퀴를 동시에 굴리게 된다. 총 350평 규모의 6층 건물이 미래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 도량으로 장엄돼 부산 불자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허경구, 장휘옥, 김사업, 최봉수 등 유명 학자들의 강의와 수시로 마련되는 초빙특강으로 유명한 대원불교대학의 수업료는 무료. 교재비만 받고 있는 대원불교대학의 방침은 부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김범준 부산 대원불교대학 상임 법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탄생하는 교육의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051)583-7700, www.idaewon.or.kr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와! 부처님오신날 같아요"

대구경북 포교사단 호암사 거주 어린이 위문

"덩 기덕 쿵덕, 덩덩 덕 쿵덕."

상주시 이안면 지산1리에 있는 호암사(주지 현종) 마당에 대구에서 온 풍물팀의 풍물공연과 살풀이 공연이 신명나게 벌어졌다. 처음에 멋쩍어하던 호암사 아이들도 나서서 마을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고3인 동현이는 어느 새 북을 잡았다. 아흔이 넘은 마을 어르신이 꽹과리를 받아 쥐었다.

11월 21일 대구경북 포교사단 염불포교팀과 대구 만평 풍물팀 30여명이 상주 호암사를 찾았다. 호암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줄 슬리퍼, 운동화 스물 켤레와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할 돼지고기, 막걸리 등을 잔뜩 싣고서.

작년에 어어 두 번째 방문이다. 도착하자마자 포교사들은 공양간으로 향했다. 준비해 온 재료들로 큰 솥에 50인분 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묵도 끓였다.

대구에서 온 포교사단을 맞아 호암사에 살고 있는 19명의 아이들도 신이 났다. 고3 동현이를 비롯한 큰 아이들은 마당에 자리도 깔고 큰 상을 펴며 일손을 덜었다. 준비된 반찬들로 차려진 공양상 앞에 마을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잔치가 시작됐다. 젊은이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시골에 남아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은 풍물패와 호암사 아이들의 재롱에 모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7살 영국이를 비롯 19명의 아이들과 엄마 보살 이옥연 씨(53), 스님이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호암사의 살림은 언제나 적자다.

대구경북 포교사단 염불포교팀과 풍물팀이 호암사를 방문해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그러나 스님과 엄마 보살은 밝고 착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난 시골에서 유일한 아이들이 돼 버린 호암사 아이들은 포교사단과 어울려 마을 어르신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법문 듣고 물건 사고 공덕 쌓고…

통도사부산포교원 바자회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상진) 3층 법당이 장터로 변신했다.

생활한복, 손으로 직접 빚은 도자기 그릇, 무공해 농산물이 법당을 찾는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입적한 월하 스님의 선서는 물론 수안 스님의 선화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통도사부산포교원 관음회(회장 곽수남) 주최로 처음 열린 바자회는 수익금 전액을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과 통도사자비원 봉사 활동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훈훈함을 더했다. 매월 관음재일마다 법회를 열고 자비참법기도 후 경남일원 사찰을 찾아 방생법회를 열어온 관음회는 인간방생의 실천을 위해 바자회를 마련했다.

"관음회 회원들은 한달에 한 번 통도사자비원 어르신들 목욕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연말에는 좋아하는 과자라도 사들고 찾아뵈어야지 하는 마음만 앞서 준비도 없이 어설픈 바자회를 열게 됐네요."

관음회 곽수남(56·일념자) 회장은 첫 바자회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무공해 농산물을 직접 고르고 쌀 100%의 떡가래를 뽑고, 떡국 거리를 준비하며 수익금 전액이 불우이웃들을 위해 쓰인다는 생각에 정성은 몇 곱절 더해졌다.

관음회 회원들의 이러한 고운 마음 씀씀이에 수안 스님도 선뜻 마음을 보탰다. 사흘 내내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수안 스님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찾아오는 불자들을 만났다. 수안 스님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불자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시며 바자회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통도사부산포교원 관음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연 바자회는 물건도 사고 불우이웃도 돕는 행사였다.

천미희 기자

부산영산재 첫 공연 성황
창립 11년만 … 진수 선보여

부산영산재보존회가 11년만에 부산영산재를 시연했다.

(사)부산영산재보존회(회장 혜융)가 11월 23일 부산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9호 부산영산재 정기 공연을 펼쳤다.

93년 영산재보존회 창립 이후 11년 만에 처음 열린 부산영산재 시연이어서 관심을 모은 이날 정기 공연에는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구암 스님 입적 이후 지방무형문화재 제 9호인 부산영산재의 뿌리를 잇고 있는 예능 보유자, 전수 조교, 전수자들이 한 무대에 올라 부산영산재의 진수를 선보인 첫 무대였다.

이날 공연에는 범패 예능보유자 혜융 스님, 나비작법무 보유자인 해강 스님, 바라작법무 보유자인 청공 스님을 비롯한 전수 조교, 전수생 및 문하생들이 대거 참여해 무용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진 부산 영산재를 시연해 보였다.

제 9호 범패 기능보유자인 혜융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타종, 삼신이운, 천수 신묘장구대다라니, 제불통청을 시작으로 대령, 관욕, 시식, 배송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장 성림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은 "전국 곳곳에서 영산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 영산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노력과 더불어 부산영산재의 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녹야원' 8집 출판기념회

11월 23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층 감로찻집에는 시와 판소리가 어우러지는 문학의 향연이 펼쳐졌다. 대구불교문인협회(회장 김연대)가 회지 <녹야원>을 여덟 번째로 출판하면서 기념법회를 개최한 것. 이날 법회에서는 50여명의 대구경북지역 불교문인들이 모여 시를 낭송하고, 판소리를 감상했다.

대구불교문인협회는 1997년 8월 한국불교문인협회 경북지회와 대구지회를 대구경북 불교문인협회로 통합한 이후 현재 8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지 녹야원은 1997년 12월 창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칠곡 구화사 삼존불 봉안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구화사(주지 혜성)가 1만평 부지에 100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하고 종정 석가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약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삼존불 봉안의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화사 주지 혜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 구화사에서 무료고아원 양노원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부산 대불련 동문 '자비의 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회장 전광구)는 12월 4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2004 대불련부산동문회 자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으로 다가온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에서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을 초청법사로 법어사 주지 대성 스님과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의 격려사,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부 공양 및 문화공연에서는 불자 가수 김무한씨와 시명 스님의 공연과 자비의 모금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051)248-0011

천미희 기자

세계 청년승가회 정기총회

2004년 8월 네팔에서 발족한 세계청년승가회(World Buddhist Sangha Youth, 공동대표 시히 리엔 하이(대만)·무닌다완사(스리랑카)·히라시미주(일본) 스님)의 제1회 정기총회가 22개국 340여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7~9일 인도 비하라 주 보디가야에서 개최됐다.

국제 불교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미 LA 대각사 주지 진각 스님이 한국대표로 참석, 나눔의 행복 주제의 특강을 했다. 진각 스님은 강연에서 "불교의 발전을 위해 승복, 불교의식, 부처님 탄신일의 통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대만 첸수이볜 총통과 태국 탁신 수상 등도 축사를 보내왔다.

불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20~40대 젊은 스님들의 모임인 세계청년승가회는 2004년 5월부터 조직 구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8월 2일 네팔에서 발기대회를 열고 창설됐다.

강유신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